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 5, 7)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하느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자비에요. 하느님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께서 히브리어에서 자비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두 개의 용어로 하느님의 부성애적이고 모성애적인 사랑을 드러내세요. 즉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깊은 선량한 태도와 모든 이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 이에요.



그런데 자비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비를 개인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 에서 다른 말들과 함께 참된 행복의 이 말씀을 되풀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하늘의 책에 적혀 있으며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우리도 용서 받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당신 사랑으로 우리 사이에 그리고 하느님과 드높은 친교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비는 사랑의, 애덕의 최상의 표현,으로서 친교를 이루고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centro.rpu@focolare.org

da un commento di Chiara Lubich
dalla Parola di vita di nov'00
Parola di Vita
movimento dei
focolari
adattamento Centro Internazionale Ragazzi per l'unità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 5, 7)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살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웃을 특히 가장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랑인 자비의** 형태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살도록 노력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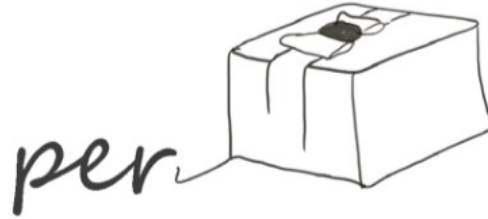
재지 않고, 풍성하고, 보편적이며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마지막 목표인 **상호성을 가져 오고자 하는**

자비가 없다면 단지 **평등은 가져 오겠지만 형제애는** 낳지 못하는 정의만 있을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자주 중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거부 된 용서에 관해 이야기해요.

하지만 손상을 보상할 모든 방법을 시도한 후에 우리는 유일하게 악이 가져온 개인적, 사회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용서의 장을** 남겨 놓아야 해요.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니 우리가 어떤 잘못, 어떤 불의를 당했다 하더라도 용서하기로 해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을 것이에요.

우리는 연민을 표현하기 위해 동정을 사용하는 최초의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모든 이웃 앞에서 **그의 어머니는 그를 어떻게 대할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 보기로 해요.

이 생각은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생활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이에요.

